

글로벌 人材 육성 계기 마련

2006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박국 포천시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포천시가 국제우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초청해 실시한 2006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8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동안 실시돼 포천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포천시 관내 13개 중학교 2학년 학생 74명이 참석해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벨라루스, 몰도바에서 참가한 77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6박 7일간 홈스테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로 김치 만들기, 탈 만들기, 탈춤 배우기와 다국문화체험으로 자국문화경연대회, 각종 노래 배우기를 실시했으며 기타 프로그램으로 도미노 게임, 리니지 게임, 천체관측 등을 실시했다. 8월 1일 종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포천시가 국제우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초청해 실시한 2006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8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동안 실시돼 포천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자국문화 경연대회를 마친후 기념촬영)

마치고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둘째날 관인면 교동마을에서 김치만들기에 참가한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어 관인면문화체육센터에서 중국 노래 배우기에 경북대학에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청소년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셋째날에는 한국문화체험으로 탈 만들기, 탈춤 배우기와 자국문화경연대회를 실시했는데 자국문화경연대회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노래와

춤 등을 선보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어 창의력게임인 도미노 게임을 통해 각국의 국보 제1호를 형상화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처음 도미노를 쓰러트린 후 모든 도미노가 넘어갈 때까지 함께 환호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을 실시해 각국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날부터 3일간 홈스테이 가정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폐회식에서 박국 포천시장은 "일주일전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많이 친숙해지고 다양한 오누이처럼 보여서 매우 호뭇하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우리와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자세를 갖게 된 것이 이번 행사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新都市 규모 대폭 축소 불가피

건교부 규모 너무 크고 기반시설 부족 지적

포천시가 추진중인 350만평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최근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규모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市)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6차 회의를 갖고 350만평 규모

는 포천시 인구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크고 기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신도시 건설이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 개발 규모를 200만평으로 축소하거나 기존 350만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350만평 신도시 개발은 시가 지난 2003년부터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6천 가구를 건설해 주거, 상업, 행정, 유통 기능을 갖춘 동농복합도시로 건설할 예정으로 계

획을 추진해 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동북부지역에 1천450만평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 규모내에서 포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인 것 같다"면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350만평 신도시 개발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9월에 개최되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350만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나 다소 축소된 방안에 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⑥ 야생동물 농가피해 포천전역 확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밀도 급증이 원인

관련법 현실에 맞지 않아 근본대책 못 세워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엄모씨는 멧돼지 피해 3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엄모씨의 피해 상황은 고라니가 통행하면서 미나리를 쓰러뜨려 수확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물위에 보이는 미나리 싹을 청둥오리가 뜯어 먹어 밀도가 떨어지는 피해다.

이처럼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신북면 남창산 부근 덕둔리와 금동리 지역으로 심모씨 인삼밭에 멧돼지가 출몰해 100여 칸에 걸쳐 인삼을 뽑아먹고 있던 남창고 멧돼지가 잡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인삼밭 이곳저곳을 파헤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5월에서 6월중순 사이 관인면 삼울리 김 모씨 밭과 집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장독대 등에서 기웃거리 김 모씨와 마을 주민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동면 장암리 이 모씨 밭에 멧돼지가 출몰해 고추와 콩 순을 먹고 비닐파복을 훼손하는 등 농가피해는 포천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까지로 인한 한전피해부터 한봉, 묘지, 인삼, 못자리, 미나리, 옥수수, 고구마, 콩, 연꽃에 이르기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7월말 현재까지 포천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현황은 30여건에 피해액은 5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포천시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피해액이 증가한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가 지난해 12월 수원산권역과 불무산권역, 지장산권역 등 3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멧돼지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천시 관내 멧돼지 서식밀도는 수원산과 지장산이 100ha당 6.6마리, 불무산 19.8마리로 나타났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액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천40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 2천700만원, 2003년 3천750만원, 2004년 6천500만원, 2005년 7월현재 1억1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야생동물피해 신고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및 포획실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유해야생 동물피해 방지를 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15명으로 구성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가지피해 방지를 위해 2천 600여만원 상당의 가지망 보급을 비롯한 수목원과 군부대 등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포획틀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천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유해야생 동물의 개체수 축소가 절실하지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은 보호하도록 관련법에 지정되어 포획허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포획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수렵장 개설로 인한 포획은 포천시 지역이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으로 군부대 동이 어렵고 군사보호구역 이외의 농지로서 부분수렵장 허가로 인한 포획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농작물, 분묘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포획허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조사를 실시한 후 과밀화된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포획을 위해서는 동절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포획허가 기간중에는 야간에도 총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민생경제, 국가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성장엔진...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교육, 교통, 주거문화의 표상...
대한민국 생명수의 원천...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닌 돌아오는 대한민국...
민선4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